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정신으로 지속 가능한 ‘월간양계’



김영옥 부회장(만71세)

1967.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 졸업
1969~1972. 한국가금협회(대한양계협회 전신) 편집부장(월간양계 초대편집부장)
1972~1985. (주)퓨리나코리아 지역부장/농장장/개발부장
1985~1994. 제일사료(주) 상무이사/전무/부사장/사장
1995~2000. 제일곡산 대표이사/총괄사장/부회장
2001~2004. 한국사료협회 이사/부회장
2001~2008. 하림그룹 수석부회장
2010~2011. (주)체리부로, 계영농산 부회장
현 재. 중국(장준) 코피드 부회장
축산정책포럼 회장 및 고문
한국축산경제연구소 연구위원

1969 년 11월에 통권 제1호를 발행한 월간양계가 이번 호를 발간으로 창간 46주년을 맞았다. 양계인들의 필독서 월간양계의 초대 편집부장을 역임하면서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영옥 부회장을 만나 창간 당시 에피소드와 현재 활동사항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김영옥 부회장님, 양계협회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죠?

월간양계 애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 2008년에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고 7년만이네요. 양계협회와의 인연은 월간양계 탄생인 1969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축산학과 공부를 마치고 1969년 6월에 육군 중위 제대 후 한국가금협회(대한양계협회 전신)에 입사했습니다. 지도교수님이신 오봉국 교수님의 소개로 잡지 발간 사업에 대한 첫 의견을 모으는 협회 이사회를 따라가 얼떨결에 공식 석상에서 인사를 하게 됐고 다음날부터 협회를 출근하게 되었죠. 당시 서울 초동에 위치한 협회에 첫 출근을 하니 이재식 씨, 차묘순 씨 등 직원 둘이 단출히 근무하고 있었고 저는 편집부장으로 월간양계 첫 발간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46년 전, ‘월간양계’ 창간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대학시절 오봉국 교수님이 발간한 ‘육추일지’의 편집을 미미하게 도와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축산 분야에서 전문지나 월간지를 발행했던 자가 없었기 때문에 맡겨보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네요. 잡지 구성과 편집을 어떤 식으로 기획할지 고민하던 중 일본의 오랜 역사를 지닌 양계잡지 “계의연구”와 영국의 과학저널 “World Poultry Science” 두 개의 잡지를 모델로 선정해 여기에 시사뉴스와 양계시세를 가미해 가판을 꾸며보았죠. 7월말 문화공보부에 잡지등록을 하고 책 한 권을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지라 그때부터 주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죠. 당시 한국가금협회 4대 회장을 겸임하신 오봉국 교수님이 월간양계 제작 총괄을 맡아주셨고, 편집위원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획구성에 도움을 주신 (주)에스에프 신정재 회장님, 전문기술원고 검토를 전담하신 서울사료 임병규 사장님 등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1969년 11월에 월간양계 제 1호가 발간됐습니다. 월간양계 제호는 오봉국 교수님의 지인이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윤석봉 교수의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제 친형님이신 김승옥 소설가가 제 1호, 2호 표지를 직접 그려주는 등 주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월간양계가 탄생되었습니다.

편집부장으로 입사는 했지만 매달 잡지 한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이었습니다. 낮에는 광고영업을 다니고 밤에는 원고를 쓰고 교정하는 일을 반복하다가 마감 때가 되면 활자로 만들어 조판을 찍어내 보통 3~4번의 교정을 거치는 작업은 여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야근과 철야를 밥 먹듯이 하던 때라 사무실에 목침대에서 생활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공교롭지만 다행스럽게도 협회 사무실은 저와 졸업을 같이한 서울대 축산과 63, 64, 65학번 그리고 이재식 씨의 모교인 건대 축산과 3기, 5기의 집합장

소가 되어 적은 봉급으로 이 친구들에게 설렁탕과 국밥을 사줘가며 월간양계 교정을 한번이라도 더 보게 했었죠. 그 시절에는 사회적 분위기상 너나 할 것 없이 힘들었을 때라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고생 가운데서도 재미있는 협회 생활을 보냈습니다.

‘월간양계’ 가 초기 자리 잡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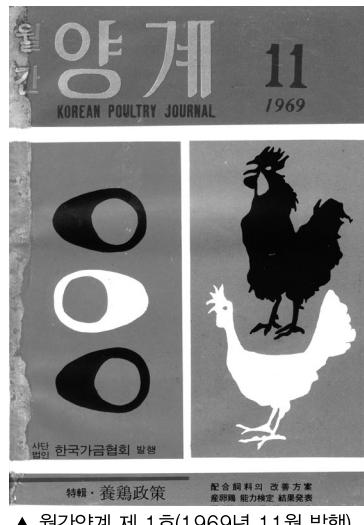
월간양계가 성공하는데 특징 중 하나는 발행부수에 있습니다. 그 당시 장준하 선생이 발간하던 월간지 ‘사상계’ 가 5천부 발행하던 시절에 축산전문지인 ‘월간양계’ 3천부 인쇄는 상당히 많은 부수였죠. 이는 협회 발전과 월간지 제작을 위해 도와주신 광고주에게 광고 수익의 절반은 돌려주면서 협회를 키우자는 오봉국 교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한 해가 지나니 광고 페이지수도 꽤나 늘어나면서 호응을 얻고 있을 때 이때부터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 발간되는 양계잡지는 월간 양계, 현대양계, 양계경영, 하이라인이었죠. 같은 업체의 광고 필름 값이라도 아끼자는 생각에 협회가 중심이 되어 잡지사들이 공조되어 광고필름을 주고 받으며 제작비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월간양계’로 협회 자리 잡아 후배들에게 물려주기까지...

월간양계로 협회가 발전하고 광고 수익에 따른 재정이 확보되면서 1972년 협회에 드디어 후배가 들어왔죠. 심동옥 씨, 유상철 씨, 김정인 씨가 입사하면서 편집부와 총무부 등 2개 부서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협회도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후배들에게 협회 편집업무를 넘겨주고 저는 1972년 결혼과 함께 (주) 퓨리나코리아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 후 초창기에는 계간지인 ‘퓨리나서비스’ 발간을 담당했고, 이후 판매부로 옮겨 세일즈맨으로 활동영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이후 제일사료(주)와 제일곡산에서 상무이사, 전무, 부사장, 사장을 역임하고 이후 하림그룹에서 수석부회장으로 활동, (주)체리부로 및 계영농산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월간양계 나이와 동일하게 양계산업에서 46년째 인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 사항은?

현재는 축산정책포럼 활동과 축산신문사 부설 축산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및 중국의 코피드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열약했던 양계산업에서 시작했지만 산업이 발전하면서 많은 후배들 덕분에 국내 양계산업은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배합사료 생산량 4위국 임에도 불구하고 큰 시너지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곡물 문제가 큰 이슈가



▲ 월간양계 제 1호(1969년 11월 발행)

되는 만큼 글로벌 시장과 해외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곡물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식량자원 개발을 통해 국내사료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계인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모의 가업을 이어 2세대로 활동하는 양계인을 보면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옛것을 연구해 새것을 안다는 말처럼 과거 부모들의 어려웠던 양계 산업을 보면 부지런하고 성실함을 토대로 새로운 전문지식을 받아들여 활동한다면 국내 양계산업을 보다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끼고 근면하고 겸손한 자세의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미래의 시대정신에 대해 자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향후 글로벌 시장은 투명성, 다양성, 시장성, 문화성이 확보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960~70년대 전문지식이 부족했던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무료 강습회를 열며 강사료 한 푼 받지 않고 산업 발전을 위해 공헌하신 오봉국 교수, 故오세정 교수, 최창해 교수, 한인규 교수, 박근식 소장 등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월간양계 편집위원으로 (주)에스에프 신정재 회장, 서울사료 임병규 사장, 한국양계연구소 김영환 소장은 물론 동신부회장(현 한협) 박도현 부회장 등 월간양계 제작 초창기에 혼신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무엇보다 양계산업이 자리잡기 전부터 협회를 보고 큰 금액을 협찬해주신 월간양계 광고주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6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계산업 발전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양계인을 위한 잡지 ‘월간양계’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무한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일사료 설립자이자 월간양계 창간 당시 최대 광고주였던 故이용구 회장의 흉상 앞에서(김영옥 부회장은 故이용구 회장으로부터 많은 총애를 받았단다)



취재 | 장성영 기자
ch-spirow@hanmail.net